

- 환영:**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Home!
- 예배:** 다음 주일(9월3일) 성찬예식 거행합니다. 보좌: 민예인 전도사, 조길호 장로, 황원규 권사
- 한인코커스 주관 선교디너:** 오는 토요일(9월2일) 오후5시 산라몬밸리한인교회(김종식 목사 / 902 Danville Blvd, Alamo, CA 94507) / 티켓: \$20.00 / 개척교회 선교후원 펀드레이징 / 각 속회별로 속장님들께서 티켓 판매할 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4시30분 교회에서 교회밴 두 대 출발합니다.
- 찬양대 세미나(대장 전상숙 권사):** 9월 10일 주일 친교 후 / 강사: 정민선 장로
- 야외예배 감사:** 위하여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모임:** 찬양경연대회 준비모임(남선교회 주관) 오늘 친교 후 회의실 / 참석: 남선교회 회장단, 신도대표, 임원회장, 찬양대장, 예배/교육위원장, 연합속장, 1/2 여선교회 회장, 목회자 등
- 구약성경 필사:** 23년 9월~24년 4월 / 다음 주일부터 성경필사 차트에 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경의 필사용지와 펜을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 주중예배:** 8월 한달 수요일은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9월부터 수요일예배(오전10시) 성전에서 드립니다. 토요일아침예배(라이브 영상예배)는 오전 7시30분 성전에서 드립니다.
- 주중 특별모임:** 북클럽(격주 토 오전8시, 2층 도서실) / 장구팀(매주 금 오전10시, 2층) / 미술반(주일오후 2층)
- 주일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10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친교 후 2층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한국학교 개강:** 135명 학생 등록, 8개반 /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okoreanschool@gmail.com
- 청년부:** 예배 후에 청년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 주일친교:** 오늘: 강비비안 권사, 광송자 권사 / 다음주일: 윤행자 권사 / 친교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출타: 박태순 집사, 이학주 권사 가정(한국)

2023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3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2)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Worship] Sun 10am
수요찬양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Bible Study] Sun 11am
토요일아침예배	오전7시반(대면/영상)	Youth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Gathering] After Worship
주일중보기도모임	-		

[오클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kschool.org / 개강 8월19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Lead Pastor] Hyun Jung
hsjungusa@hotmail.com
- [전도사] 민예인
- [행정간사] 김하영
- [지휘자] 최희숙
- [반주자] 공은선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주 일 예 배

2023년 8월 27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민예인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찬 송 Hymn / 16장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회 중 기 도 Prayer / 정민선 장로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사도행전 28장 30~31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의 증언"

새가족 환영과 알림 Announcement /

❖ 봉헌 및 찬송 Offering, Hymn /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8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예배	7/8월 예배섬김
6	담임목사	수요일	[안내위원]
13	한연우 권사	영상예배(유튜브)	이연진 권사
20	야외예배 곽태길 권사/조엘리 학생	*****	양경혜 권사
27	정민선 장로	토요일예배 오전7시30분	[봉헌위원] 박혜숙 권사

[수요/토요일예배: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수요일(8/30) 영상예배 / 토요일(9/2) 오전7시30분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자	배성한 성도님 김은주 성도님	방문	
	Jason Han 성도님	방문	한연우 권사
	박예림 자매님	방문	한선욱 권사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8월20일 / 합계: \$3,338.00]

[십일조] 장유익 정기호

[감사헌금] 곽태길 윤진자 정신애 조엘리 최충열

[주정/월정/주일헌금] 김단진 김정필 김충식/현숙 남정우

민예인/하영 박혜숙 윤행자 이진희/명숙 전상숙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최인택

[지정헌금] 한연우(장학금)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76명	토요일아침예배	17명

속회	속장/인도자	모임보고/모임안내	선교후원
믿음 사랑속	윤숙자/오금희	[보고] 7/14/금/교회/4명/\$250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감사	이문자/황원규	[보고] 7/27/목/황원규 권사댁/5명/\$110	나눔의동산
샬롬	정정자/정지선	[보고] 8/3/정지선 장로댁/7명/\$110	예수사랑
와보라	손성리/손수락	[보고] 8/25/금/교회/8명/\$340	멕시코
온유	송재현/곽태길	[보고] 7/29/강석훈 권사댁/10명/\$370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최인택	[보고] 8/25/금/최인택 장로댁/4명/\$140	-
주향한	현순정/이종혁	[보고] 8/23/수/홍승일 권사댁/7명/\$100	-
청장년 청년	정지현/민예인	[보고] 8/13/주일/이재익 형제댁/4명	기아대책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충성을 다 아시고 계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일들을 분명히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심으로 거룩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은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고 어떤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 간의 알력에 시달렸고 가족과 환경에 매여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지로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수 천의 마을들을 향하여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알고 친구들이 도움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그곳으로 보내려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적어 다음 편지에 보내 주면 좋겠네."

그러자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스스로 찾아오겠다는 사람이라네."

그런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 확실대로 그는 늘 살아남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 토요일아침예배(8/26) 묵상(사도행전23장)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	28일(월) 사도행전 24장	29일(화) 사도 25-26장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30일(수) 사도행전 27장	31일(목) 사도행전 28장
8월: 사도행전	9/1(금) 역대하 5장	9/2(토) 역대하 6장